

강론 ...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서 동 호
(평협회장)

오늘은 서른아홉번째 맞이하는 평신도주일이며 연중 마지막 주일을 한주간 앞두고 있는 날로써 오늘복음에서 일러주신 대로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독수리의 삶에 대한 과정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독수리는 약 70년의 수명을 자랑하는 겨울철새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이처럼 독수리가 오래사는 이유는 태어나서 30년~40년이 지나면 그 날카롭던 부리는 무디어지고 우아하던 날개는 거추장스러울 만큼 깃털이 무거워져 날기 힘들게 되고 발톱은 닳아서 날카로움을 잃게될 때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새 삶으로 변화해 갈 것이냐' 하는 길목에서 고심에 찬 선택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새 삶을 향한 쇠신을 결심한다면 그 독수리는 적어도 5~6개월 동안의 힘들고 괴로운 과정을 감내해야 됩니다.

먼저 높은산 암벽옆에 등지를 틀고 부리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부리로 암벽을 치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면서 부리가 다 깨어져 새로 날 때까지 인내의 시간을 보낸 후 새로난 부리로 자기 발톱을 하나씩 빼냅니다.

이 아픔의 시간을 겪고나야만이 새로운 발톱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창한 숲속으로 날아다니면서 자기 날개의 깃털이 나뭇가지에 부딪쳐 뽑혀지게 하는 고통의 시간을 감내 하면서 새로운 깃털이 날 때까지 쉬지 않고 날아다니는 날들을 보냅니다.

이처럼 독수리는 자신의 몸 전체를 새롭게 갈아낸 뒤 30~40년의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허물이나 죄와 같은 지난날의 구약이라 할수 있는 구태와 구습을 모두 벗어버리겠다고 결심하고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따라서 어제보다는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도록 우리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변화되는 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예나 지금(영세 후 신자생활)이나 똑같은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독수리가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쇠신하는 신앙의 삶이 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교구설정 70주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전주교구 순교선열들의 후손답게 자기 믿음을 새롭게 되돌아 볼 줄 아는 삶이 될때 '너희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게 되는' (마르 13,28-29)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문정섭
(베드로)

같은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맹약



최 용준 신부
뉴욕 S.I 본당 주임

“그래서 그들도 모세에게서 물려받은 법을 따라 우리 주 아웨의 계명과 법령과 규례대로 살기로 하고,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맹세하였다.” (느헤 10,30)

맹세는 단단한 각오이다. 맹세 안에는 어떤 비장함마저 스며있다. 삶이 평온하다면 굳이 맹세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집요한 괴롭힘이 밀려오면 사람은 맹세를 하게 된다. 역경에 대한 강한 반발이다. “다시는 그러하지



님께 빌었다. 지나온 세월의 여정과 애환에 가슴이 쓰러온다. 예루살렘을 재건한 오늘이지만 기구한 운명이긴 마찬가지이다. 하느님께 받은 바로 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저주받은 운명이 되지 않으

아니하리라. 절대로 이것만은 지키리라.” 소리는 커지고 맹세에 힘이 들어간다. 변경할 수 없는 약속이라면 분명 맹약이다. 의지와 결심으로 이루어진 맹세이니 하늘의 별이라도 따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맹세를 하였다. 모세의 법전을 두고 맹약을 맺었다. 하느님의 계명을 두고 맹세하였으니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맹약은 그저 나온 것이 아니다. 지난 날의 수모와 회한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조상들은 물론 자신들의 삶을 보아도 제대로 된 섬김과 충성이 드물었다. 하느님 백성이라 하지만 치욕의 발자취가 크다. 나라는 망하고 처지는 비참하게 되었다. 이제 와서 무엇에 희망을 둘 것인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하느님의 법을 들으면서 백성들은 울었다. 속죄의 날에 단식을 하며 죄를 뉘우치고 하느

를 거든 맹약이라도 맺고 지켜야 한다. 그것만이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서명하고 백성들이 서명하였다. 타 민족과 섞이지 말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며 성전에 필요한 십일조를 꼭 바칠 것을 맹세하였다. 이제라도 하느님의 성전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절망이다. 그들의 종교적 맹약은 민족적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자구책이었다.

사람은 힘들수록 강한 맹세를 한다. 하지만 인간의 맹세는 헛되기 쉽다. 이러한 민족적 결단도 결국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던가. 예수님은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하셨다. 믿음의 충직은 맹세가 아닌 오롯한 순종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 박종구 (바드르시오)

철이 든다는 것

저녁 성무일도를 바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다. 오늘 낮에 말대꾸하는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난 나는 참다못해 매를 들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쭉욱 자라서 180센티가 넘는 큰 아이와 내 키를 막 넘어서고 있는 작은 아이를 올려다보며 회초리 하나 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내 모습이 마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영역이나마 안 뺏기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처럼 초라하게 느껴졌다.

철부지 아이들은 가끔씩 내가 꼭꼭 감추고 싶었던 나의 약점들을 하나씩 들고 나온다. 그럴 때면 그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나약해지고 만다.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기에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도 반듯한 아이로 잘 키워보고 싶은 게 모든 부모의 바람일 것이다.

어머니라는 길을 통해 우리도 철이 들어가는 것일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아들을 끝까지 눈물로 지켜봐야 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었을 가리옷 사람 유다의 어머니. 같은 세상에서 같은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으되 전혀 다른 차원의 운명의 길을 걸어 가야 했던 사람들이다.

아들을 위해 18년 동안 끊임없이 모니카 성녀가 바친 눈물의 기도를 생각해 본다.

철이 든다는 것은 먼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일일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과 대면하게 되는 일일 것이다.

늦게야 철이든 아우구스티노 성인에게 모니카 성녀가 남긴 마지막 말씀은 이것이었다.

“아들아, 내게 있어선 세상 낙이라곤 인제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살고 싶어 했던 것은 한 가지 일 때문이었다…… 네가 세속의 행복을 끊고 그분의 종이 된 것을 보게 되니, 그럼 내 할 일이 또 무엇이었느냐…… 한 가지만 너에게 부탁한다. 네가 어디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날 기억해 다오.”

김혜선(아네스) · 그림 황의성(세례자 요한)



입당송 예레 29,11,12,14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려 한다.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고, 내가 너희를 쫓아 보낸 모든 땅에서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라.

제1독서 다니 12,1-3

회답송 시편 16(15),5와 8,9-10,11 (◎ 1)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주님께 피신하오니이다.

제2독서 히브 10,11-14,18

복음 환호송 루카 21,36

◎ 알렐루야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 알렐루야

복음 마르 13,24-32

영성체송 시편 73(72),28

하느님께 가까이 있음이 저에게는 좋으니이다. 저는 주 하느님을 제 피신처로 삼으리다.



● 군산 장애인복지관 개관 6주년 감사미사



지난 11월 11일(토) 군산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전경숙 수녀)은 개관 6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오전 11시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병호 주교가 집전한 감사 미사가 있었고 이어서 나눔의 식사가 있었다.

또한 미사 전에 복지관 이모저모를 보여주는 영상물을 상영하였고 복지관 1층 입구에서는 복지관 학생들의 그림과 도예품 등을 전시하였다.

미사 중에 묵묵히 활동해온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6명에 대한 감사패와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김영수, 이미원 기자

고등학생 천주교 동아리 연합회)소속 학생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는 3학년 선배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미사로 여러 동아리의 축하와 신부님의 안수가 미사 중에 있었다.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을 위해서는 25~26일 1박 2일간 고3 피정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 피정은 예절교육과 사회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특강들 그리고 고등학교 시간동안 소홀히 했던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참회예절로 이루어진다.

김동욱 기자

● 장계 성당 성서 통독반 수료식

장계 성당(주임= 엄기봉신부)은 지난 11월 12일(주일) 교중미사중 성서를 통독한 성서반원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주임신부는 친구약을 통독한 18명과 신약을 통독한 6명 등 24명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격려했다. 친구약을 통독한 18명은 지난 2년간 매주 월요일 저녁 교육관에서 성서를 공부해왔다.

한편 수료증을 수여받은 성서 통독반원은 떡 2말을 준비, 교중미사후 신자들과 함께 나눔의 잔치를 벌였다.

이우연 기자

● 쌍교동 성당 '춘향골 어른신 섬김잔치'

쌍교동 성당(주임=박성팔)은 지난 11월 11일(토) 사회복지분과(분과장=이중희)주관으로 재가봉사 대상자와 지역 독거노인 50여명을 대상으로 섬김잔치를 열어 점심을 대접하고 국악공연, 난타공연 등 여흥시간을 가지며 그리스도의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어른신에 대한 복음전파와 일치를 이루는 시간을 가졌다.

강인식 기자

● 군산지구 말씀·찬양·치유 대피정

군산지구 말씀·찬양·치유 대피정이 지난 11월 8일(수) 오전 9시부터 군산지구 성령쇄신 봉사회 주관으로 나운동 성당에서 열렸다. 군산지구 12개 성당 500여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이번 피정은 찬미, 강의, 치유기도, 파견미사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기쁨의 삶'을 주제로 강의를 맡은 박호철 베네딕도(청주교구)신부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기쁨(필리 4,4)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야 한다"며 가톨릭교회의 두 기둥인 성체성사와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구원과 행복의 길을 제시하였다.

이오라 기자

● 고3 수험생을 위한 미사

지난 11월 12일(주일) 오후 5시 서학동 성당에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미사가 김정현 청소년교육국장 신부 집전으로 봉헌되었다. 이날 미사는 전교천동연(전주교구

<p>젠인아트 전진아 (실비아) 부부국가자격보석감정사 미국보석학회GIA 감정사 ☎(063)462-7777 / 018-648-7777</p>	<p>유* 사랑 외과 유방 전문 클리닉 유방암 검진 원장 소 우 성(스테파노) 서신동 E마트앞 ☎(063)253-6075</p>	<p>16년 역사 수맥돌침대 - 공장 직판 -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대표 : 이경복 바오로 전주 1588-5335</p>	<p>고품격 국제결혼 <베트남·필리핀 등> 6개국 이종관(도민고) ☎ 016-9612-9380 / (063) 241-9380 - 교우분 특별우대 -</p>
<p>28차 아일랜드 영어연수생 모집 주최 : 마신부님(Rev. Brendan MacHale) 대학생 : 1/7~2/18(6주) 599만원 초·중생 : 1/2~1/29(4주) 409만원 문의 : (주)그린피스 E&T 02-569-1331</p>	<p>대장항문병 전문병원 장 문 외과 치질·변비·유방클리닉 전문의 최 성 앙(루가) 전문의 안 해 선(사도요한) 전문의 이 철 중 www.jangmun.com 대표전화☎(063)834-6000 익산 영동동 육교 밑</p>	<p>서울방사선과 MRI센터 MRI촬영(전신), C-T촬영(전신) X-Ray 특수촬영 및 투시 칼라 초음파 검사, 유방 촬영 원장 : 방사선과 전문의 박인숙(아나타시아) 원장 : 방사선과 전문의 정진영 ☎(063)278-1312~3</p>	<p>고급 생선(도매, 소매) 100번 수산 이복동(마테오) 이미숙(리디아) 삼천동 농협공판장(내) 227-7877 / 011-652-8045</p>



2007년 교구장 사목교서 연수

지난 11월 9일(목) 오후 2시부터 중앙성당에서 2007년 교구장 사목교서 연수가 있었다. 교구내 신부와 수녀, 그리고 많은 평신도들이 함께 한 이날 사목교서 연수는 이병호 주교의 사목교서 발표와 여혁구 관리국장 신부의 가톨릭 센터 신축현황 보고, 김광태 사목국장 신부의 전주교구 복음화 상황 보고로 이어졌고 개인과 본당별 선교상 시상식으로 마쳤다.



사목교서에서 발표되고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자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안에서 우리들 각각은 누구이며, 우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연구하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간의 협력관계를 모색해 나갈것”이며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는 한해가 되도록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병호 빈첸시오 주교는 “올해는 특별히 구체적인 활동지침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대희년 특별

신도간의 협력관계를 모색해 나갈것”이며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는 한해가 되도록 할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선교상은 개인선교대상 남원 쌍교동의 박태규 시몬 형제, 선교 최우수 본당으로는 군산 미룡동 성당에게 돌아갔다. |김동욱 기자

● 군산지구 가톨릭 남성 중창단 '올림' 발표회

지난 11월 10일(금) 군산지구 가톨릭 남성중창단 '올림'의 발표회가 지곡성당에서 열렸다.

오후 8시에 시작하여 1시간 30분 가량 계속된 이 공연에 '올림'의 노래들과 더불어 둔율동 성당 '안젤로스' 폴랏 중주와 지곡성당 글로리아 성가대 찬조 출연으로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함께 자리한 신자들은 아름다운 화음에 박수로 답하며 깊어가는 가을밤을 즐겼다. |김영수, 이미원 기자

성당 신부 4명(서신 보좌신부님 포함)과 각본당 신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친선 족구대회를 개최하였다. 한본당에서 2개팀을 구성 모두 6개팀이 불꽃튀는 리그전을 벌여 서곡 성당이 4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하였다. |김대식 기자

● 서신동지역 3개 성당 친선 족구대회

지난 11월 12일(주일) 오후 2시부터 서신1지구에 위치한 대우공원에서 서일 성당(주임신부=김진룡) 사목회(회장=소윤섭) 주관으로 모성당인 서신동 성당(주임신부=전대복)과 형제본당인 서곡 성당(주임신부=정성만) 등 3개

● 교구 가톨릭 미술가회 모임

지난 11월 13일(월) 가톨릭 미술가회(지도=현유복 신부) 정기 모임이 가톨릭센터 온가에서 열렸다. 3년간의 공백을 깨고 거듭나려는 미술가회는 교구설정 70주년 기념일인 2007년 4월 13일에 전람회를 가질 예정이며 10월중 루갈다제전에 초,중고생 미술대회 개최 및 전국 미술인들을 대상으로 가톨릭 미술대전도 준비중이다.

매 월 둘째주 치명자산 몽마르뜨 광장에서 사생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문가 및 초보자와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홍보국 정리

<p>강성호 피부과 강성호(이나시오) 박민정(루비나) ☎(063)255-8700 롯데백화점 옆</p>	<p>성지순례 이집트/이탈리아/비티안 출발: 2007년 1월 3일~13일(10박 11일) 매일 미사 드립니다. 전일관광 조선 (안토니오) 문의: 063-288-6666</p>	<p>통신으로 배우는 신화과정(신입생 모집) 대상: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받은 평신도와 수도자(만 18세이상, 학력 제한 없음) 내용: 신구약성경 및 신학일반(그리스도론, 마리아론, 전례학, 삼위일체론 등) 원서교부 및 접수: 11.13~2007.2.16(우편가능) 문의: 02-745-8339(직), 02-747-8501~5(교)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교육부</p>	<p>국내 입양전문기관 (해성보육원) 살트로 성바오로 수녀회 운영 신생아 및 연장아동 입양상담 문의: 032-875-3240 www.hschild.or.kr</p>
<p>전북대병원 처방 조제전문 대학약국 (전북대병원 신전문 앞) 약학박사: 김용기(베드로) ☎(063)275-5700 FAX. (063)275-5760</p>	<p>최고의 전국 꽃배달서비스 신선미 꽃집 범근배(방지거) · 박선자(루시아) 중화산동 비상경계장~도청사이 ☎ 222-0004</p>	<p>최고의 시설 / 최강의 강사진 양평 매일 기숙학원 예비고 1,2,3 및 예비 중3 / 재수 종합반 교무부장 박경민(요한) 총무부장 조선희(소시오) 문의: 031-773-4700 / 02-3432-5447</p>	<p>김장배추 절여드립니다 -11월 20일부터 주문 가능- 진안김치공장 주문처: 011-678-2004 김가타리나</p>



교구장 일정

- 인보성체수도회 총회 개최 미사
11월 20일(월) 오후 3시
- 사제평의회
11월 22일(수) 오후 2시
- 새사제 연수
11월 23일(목) 오전 10시
- 견진
11월 26일(주일) 오전 10시 30분 팔봉

미사·행사·모임

- 수녀연합회 11월 모임
11월 21일(화) 오전 9시 센터 3층 강당
주제 : 우리는 어떤 사목을 지향해야 하는가
강사 : 조정오 총대리 신부
- 사제평의회
11월 22일(수) 오후 2시 교구청
- 라헬기도모임 생명을 위한 미사
11월 23일(목) 오후 2시 센터
- M.E 112차 주말
11월 24일(금)~26일(주일) 천호
- 가르멜 재속회
11월 20일(월) 오전 10시 30분 용머리
- 동전주 하나회 미사
11월 26일(주일) 오후 2시 유아동
-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11월 23일(목) 오전 10시 덕진
- 가톨릭 미술가회 모임
12월 3일(주일) 오후 6시 30분 센터 온가

교육·피정·연수

- 새사제 연수
11월 23일(목) 오전 10시 센터
- 고3 피정
11월 25일(토)~26일(주일) 해월리

- 혼인강좌
11월 26일(주일) 오전 9시 30분 센터
- 본당사회복지분과위원 및 빈첸시오회원 피정
12월 10일(주일) 오전 10시 나바위 피정의집
주제 : 생명이신 하느님
대상 : 각 본당 사회복지분과위원, 빈첸시오회원
피정비 : 5,000원 / 준비물 : 필기, 미사도구
문의 : 12월 5일 / 사회사무국284-5290
*전주지역은 당일 오전 8시 30분에 시청 앞 민원실에서 버스타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미리 신청 바람.


기타

- 연희마리아 수녀와 함께하는 찬미의 밤
11월 26일(주일) 오후 7시 30분 아중성당
- 천주교 전주교구 '운전자서도회' 회원모집
운전을 하시면서 선교, 봉사활동 하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자격 : 택시운전하는 기사님
문의 : 011-654-2345 전주회장
017-450-2588 익산회장
011-679-1236 군산회장
- 박문수 신부 주소변경
Don Massimino(MOON SOO PARK)
Suore Oblate del S. Cuore di Gesu
Via del Casaletto 128,
00151, Roma, Italy

11월 좋은 영화 - 핑귄

일 시 : 11월 22일(수) 오후 2시 센터 3층
상영시간 : 85분
관람비 : 천원

작은 생명을 지켜낸 260일간의 감동 실화. 차가운 얼음의 땅에서 보여준 따뜻한 이야기.



새 가톨릭센터 특별 신축헌금(11/5~11)
재경신우회 김중수 200,000

•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에서는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교회의 명예를 드높인 교우나 단체를 시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추천 바랍니다.

- 분야 : 사랑봉사상, 생명환경상, 사회문화상
자격요건
- ① 2006년 당해 연도의 실적만 해당됨 (사랑봉사상)
 - ②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수상실적이 있는 분은 제외됨.
 - ③ 당해 연도에 업적이 있었으나 선종하신 분도 가능함.
 - ④ 본당은 단체에서 제외 됨.
 - ⑤ 반드시 본당신부, 지도신부의 추천을 받아야 함. (사랑봉사상은 해당기관이나 단체의 추천가능)

문의 : 285-2935

전주교구 '소공동체수첩' 제작 보급 안내

단체장이나 신자들이 필수품으로 휴대하실 수 있도록 편집했습니다.
가격 : 1부당 4,000원
신청 및 문의 : 285-0041
Fax : 285-0049



제4회 전주교구 테마 영상작품 공모전 기간 연장

지난 10월 20일자로 마감되었던 테마영상 공모전에 연장, 추가 모집합니다. (특히 파워포인트나 앨범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본당행사나 단체 영상도 접수합니다.)

공모주제 : 선교, 복음, 봉사
접수기간 : 2006. 9. 11~11. 20
(우편접수는 당일소인 유효)

작품접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jatholic.or.kr)

문의 : 285-0041



차동엽 신부의 하루영성피정
주제 : 발에 묻힌 보물
일시 : 12월 1일(금)
장소 : 정하상교육회관
피정지도 : 차동엽 신부
홈페이지 참조
www.paulhasang.or.kr
문의 : 041-863-5690~4

2007학년도 인천가톨릭대학교 종교미술학부 신입생 모집
모집인원 : 회화 / 조소전공 60명 (정원의 10명 포함)
원서접수 : 2006년 12월 21일~26일
문의처 : 종교미술학부 교무과
032-438-8131~4
위치 : 1호선 간석역(도보 10분)

교황청 어린이전교회 꿈나무 스키캠프
일시 : 2007년 1월 10일~12일(2박 3일)
장소 : 오크벨리 스노우파크(원주시 소재)
주제 : '먼저 사랑할래요'
대상 : 초등부 4~6학년 150명(매강 12월 15일)
참가비 : 한국지부 보조금 외 100,000원
문의 : 02-2268-7103~4
www.pmsk.net

작은예수회 2006년 송년캠프
대상 : 11월 25일(토) 오전 11시
특별강연 : 박제만 신부, 박성구 신부, 한철호 신부
장소 : 경기도 현리 작은예수회마을
교통편 : 지역별 출발 있음
문의 : 02-777-6444

전주교구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일시 : 11월 24일(금) 밤 11시~ 새벽 4시 전동성당
특별강사 : 조상현 안드레아 (전 광주성령봉사회 회장)
주관 : 전주교구 성령쇄신 봉사회

2007(안동)가톨릭상지대학 신입생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전문대학'
수시2학기 2차 : 10. 18(수)~11월 24일(금)
모집학과 안내 : http://www.csangi.ac.kr
문의 : 054-851-3021~3 / fax : 054-851-3009

성탄 전례 피정
일시 : 12월 23일 오후 2시~25일
장소 : 성 베네딕도 왜관 피정의 집
참가비 : 90,000원
신청 및 문의 : 054-971-0722

한국 외방선교회 성소모임
일시 : 11월 26일(주일) 오후 2시
장소 : 광주 가톨릭센터
문의 : 02-3673-2525, 010-6269-1711
비고 : 선교사제를 희망하는 세례받은지 3년이상된 고등학생, 대학생, 만 30세이하 미혼남자.

임순남 · 무진장 지구 본당 소식

도통동

주임신부: 625-0091 사무실: 631-0091 주임신부: 김 의 태
F A X: 633-0081 수녀원: 635-0091 서록회장: 김 기 장

- ◎ 예비신자 봉헌 약속이 꼭 이루어지도록 선교에 노력함시대(예비신자 입교식 11월 26일)
- ◎ "내 마음의 성전을 짓기 위한 성경 시편 쓰기" 금주: 113장~119장 72절
- 1. 오늘 ① 평신도 주일 2차 헌금 ② 성인복사회 ③ 안나회 ④ 아가베회
- 2. 금주모임 ① 사도모임 24일(금) 미사 후 ② 애령회 모임 24일(금) 후 8시
- 3. 감사헌금: 이명자 10만
- 4. 제2차 성전신축을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바치기(새생전 축성식 일정에 맞춰 더욱 열심히 기도합시다): 814,352단(+ 7,930단)
- 5. 성전신축을 위한 가정 고리기도: 이명석 스테파노, 이덕희 안나 가정 / 배옥자 이사벨라 가정
- 6. 성전신축헌금: 권길성(조춘동) 50만
- 7. 차주 ① 예비신자 입교식 ② 성전신축 2차 헌금 ③ 모니카회 ④ 전례분과 모임
- 지난주 봉헌금: 1,196,460원 ■ 교무금: 1,367,000원

무주

주임신부: 322-2308 사무실: 324-0555 주임신부: 이 성 용
유지원: 324-3555 수녀원: 322-2399 서록회장: 김 원 태

- ◎ 성서읽기: 11월 셋째주간: 시편56장~62장
- ◎ 본당 50주년 목주기도 봉헌: 금주 4,025단 계 384,519단
- ◎ 추수감사 미사: 교중미사
- ◎ 유아세례: 11월 25일(토) 후 7시(사무실접수)
- ◎ 차주공소미사: 무풍공소(성탄판공)
- ◎ 성당청소: 11월 25일(토)~한수리, 상록반 ※ 오늘은 평신도 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 1. 모임 ① 꾸리아-교중미사 후 ② 테레사회-11월 21일(화) 후 8시
- 2. 금주전례: 해설-관병남, 독서-양호일 부부
봉헌-김영도, 남복희, 기도-심창호, 김순자
- 3. 차주전례: 해설-박영주, 독서-강원석, 임순옥
봉헌-이승희, 전이선, 기도-강미애, 함은화
- 지난주 봉헌금: 528,000원 ■ 교무금: 775,000원

순창

주임신부: 653-1004 사무실: 652-1004 주임신부: 송 은 석
F A X: 653-0414 수녀원: 653-3135 서록회장: 정 은 동
홈페이지: www.sccatholic.net

- ◎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납부에 관심을 가지시다.
- ◎ 본당 정기총회-26일(일) 미사 후
- ◎ 오늘 평신도 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 1. 금주모임: 안나회-테레사회-미사 후
- 2. 차주모임: 사목회-28(화) 미사 후
- 3. 금주전례: 해설-신민호, 독서-황영순 노상래
- 4. 차주전례: 해설-권정숙, 독서-오경순 이훈택
- 5. 청소: 금주-다윗의 탑Pr., 차주-사랑하을 어머니Pr.
- 6. 차량봉사: 금주-이기주 임래원, 차주-김희중 김진한
- 7. 감사헌금: 윤영애 노상래 ※ 감사합니다.
- 8. 탁자구입에 도움주신 분: 노은실 구분길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792,810원 ■ 교무금: 1,960,000원

쌍교동

주임신부: 633-1004 사무실: 633-4004 주임신부: 박 성 팔
유지원: 633-4005 수녀원: 626-1004 서록회장: 양 장 석
홈페이지: http://www.ssangkyo.org

- ◎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마르 13,32).
- ◎ 전 신자 피정: 12월 4일(월) ~ 8일(금)까지, 매일 저녁 7시부터
※ 주제 - 우리시대의 영성, 참가비 - 5,000원, 주관 - 교구 M.B.W
- ◎ 2007학년도 소화유치원 신입생 모집 안내
- ① 지원자격: 2002년 3월 1일 ~ 2004년 2월 28일생
- ② 원서교부: 2006년 11월 29일(수) 후 6시 30분(선착순 교부)
- 1. 모임안내: ① 요셉회, 성모회, 애령회 - 19일(일) 교중미사 후
② 예루살렘회 - 21일(화) 전 10시 30분
③ 사목회 - 24일(금) 후 7시 30분 ④ M.E. - 20일(월) 후 8시
- 2. 축 명명: 본당 신부님(30일), 축하식 26일(일) - 많은 기도 바랍니다.
- 3. 축 결환: 26일(일) 후 12시 30분, 신랑 - 전광연, 신부 - 설선아
- 4. 가톨릭센터 신축헌금 총 신인액: 157,304,000원, 납입액: 98,465,000원
- 5. 감사헌금: 익명 3만, 강귀남 10만, 양서현 10만
- 지난주 봉헌금: 2,333,620원 ■ 교무금: 2,146,000원

진안

주임신부: 433-0750 사무실: 433-2541 주임신부: 정 석 수
F A X: 433-7599 수녀원: 433-1531 서록회장: 김 길 용
연결공소: 433-3177 유지원: 433-2293

- ◎ 오늘은 여주 제33주년 평신도주일이며 2차헌금 있습니다.
- ◎ 초록순례: 11월 26일 전 10시 30분
- ◎ 서사본도 및 부제풀이에 참여해주시는 신청은 사무실에 해 주세요.
- ◎ 성인회 동이 폐회: 12월부터 생계 회의
- ◎ 소화유치원 원아모집: 7세~7세아(만5세는 무상), 원아의 인성을 중시하는 참교육 실시 - 문의 433-2293
- 1. 꾸리아(전신자) 단원교육: 19일(미사 후)
- 2. 22일(수) 미사 후 어르신 성서교실: 회비 10,000원 -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수

주임신부: 644-9386 사무실: 642-6319 주임신부: 서 광 석
F A X: 642-6319 서록회장: 변 용 섭

1. 본당발전과 선교활성화를 위한 목주기도 누계: 178,999단
2.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3. 성서를 통독 합니다.
4. 서광석(요셉)신부님의 은경축일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5. 금주전례: 해설 - 문정희, 독서 - 박태군, 김양례
6. 차량봉사: 이기을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7. 차주전례: 해설 - 문판이, 독서 - 변홍섭, 이영자
8. 차량봉사: 김진태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임실

주임신부: 643-3661 사무실: 642-2164 주임신부: 박 중 중
F A X: 642-2164 수녀원: 643-3660 서록회장:

1. 공소미사: 삼길 - 오늘 후 6시, 신전 - 26일 후 7시
2. 2007년도 사목분과 및 제단체별 예산안을 11월 말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50주년 기념사신(소성당, 사무실, 회합실, 화장실 신축 및 개축)을 위한 기금마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당설립 50주년 기금: 김양남(안나) 50만원, 강상운(요셉) 30만원, 강경희(마리아) 30만원, 임옥주(대건 안드레아) 50만원, 김삼재(그라시아) 5만원, 조영자(소피아) 30만원, 장외화(암브로시오) 10만원, 백인수(마리오) 100만원
5. 감사헌금: 김중현(스테파노) 5만원, 익명 5만원, 유옥례(안나) 2만원
6. 모임: 모니카회 - 오늘 교중미사 후, 유아실, 구역장회의 - 오늘 교중미사 후, 본도관
7. 구역모임: 관촌1,2,3 - 22일(수) 후 7:30 관촌 4,5 - 24일(금) 후 7:30
8. 차주전례: 해설 - 이원섭, 독서 - 임석주 부부, 봉헌 - 전막동 부부
- 지난주 봉헌금: 566,310원 ■ 교무금: 665,000원

장계

주임신부: 353-0610 사무실: 351-0111 주임신부: 엄 기 봉
F A X: 351-0605 수녀원: 353-0611 서록회장: 이 상 화

- ◎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연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1. 오늘은 계복신자 초대
- 2. 미사시간변경: 저녁 미사 7시, 특전 학생미사 오후 6시
- 3. 봉성체: 23일(목) 오전
- 4. 교구 기자단 교육 18-19일 우연태(베드로)형제 참가
- 5. 평신도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 6. 다음주일 전례봉사: 우연태, 김제일, 안옥선, 김중영, 이영철
- 7. 가정방문: 신동구역
- 8. 젓갈 판매: 김장승 젓갈 싸게 팝니다.
- 9. 윤점이 할머니집짓는데 도움주신분: 익명, 고광남
- 10. 감사헌금: 고광남 8만
- 지난주 봉헌금: 719,100원 ■ 교무금: 790,000원

장수

주임신부: 351-8888 사무실: 351-2264 주임신부: 장 천 봉
F A X: 351-5226 수녀원: 351-1228 서록회장: 박 동 표

- ◎ 평신도주일 2차 헌금 있습니다.
- ◎ 공소 1일 피정(상동, 하동, 빈암)
※ 일시: 11월 26일 전 10시~후 4시 장소 - 하동공소
※ 준비물: 미사도구, 봉헌금, 정성스런 마음
- 1. 금주참석공소: 수분
- 2. 금주공소미사: 상동
- 3. 금주전례: 김호준, 차주 - 박덕순
- 4. 금주독서: 박동표, 이행순
- 5. 차주독서: 장요섭, 김복순
- 6. 금주봉헌: 김삼석, 김옥순
- 7. 차주봉헌: 이기준, 박연심
- 8. 차량봉사: 금주 - 장요섭, 차주 - 이지수
- 지난주 봉헌금: 360,300원 ■ 교무금: 830,000원

3. 24일(금)까지 유아세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4. 26일(주일) 만남의 날 식당봉사는 어은동지역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5. 28일(화)~30일(금)까지 병자영성제 기간입니다.
6. 제단체 2007년도 행사계획 제출해주세요
7. 금주봉헌: 허현우(요셉) 부부
8. 차주봉헌: 강호균(요양) 부부
9. 성당봉수: 로사리오의 모후
- 지난주 봉헌금: 633,000원 ■ 교무금: 2,180,000원

※ 인터넷 주소창에 교구나 성당 이름만 치세요! 예) http://전주교구 또는 http://순창성당



새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6년 11월 11일 현재)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100% 납부한 본당 : 줄포선교, 문정, 상삼례, 황동, 삼례
- 신축기금 배정액 90% 이상 납부한 본당 : 옥봉, 둔율동
- 신축기금 배정액 80% 이상 납부한 본당 : 우아동, 팔복, 장수
- 신축기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본당 : 임실, 고창, 진안, 나바위, 고산, 인후동, 오수, 신태인, 여산, 소룡동, 신평
- 신축기금 배정액 60% 이상 납부한 본당 : 서학동, 장계, 무주, 오룡동, 쌍교동, 나운 2동, 금암동, 중앙, 서신동, 영등소라, 월명동, 복자, 노송동, 팔마, 소양, 신동, 숲정이, 함열, 덕진, 조촌동, 우림, 우전
- 신축기금 배정액 50% 이상 납부한 본당 : 용안, 대야, 시기동, 수류, 영등동, 솔내, 봉동, 나운동, 요촌, 용진, 효자동, 송천동, 용머리

▶ 2006년 성서 주간 담화(요약)

깊이깊이 말씀 속으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루카 24,32)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한국 천주교회가 특별히 성서 주간을 정해 신자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가까이 함으로써 보다 더 깊이 하느님 말씀에 맞들일 수 있도록 성서사도직활동을 전교회적으로 펼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성서사도직활동 중에서 두드러진 활동들로 성경통독과 성경쓰기 운동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라고 한 예로니모 성인의 말씀처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으면 보다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능력과 힘이 있으시어 단 한마디 한 줄의 말씀이라도 헛되이 쓰일 수 없으며 그저 헛바람처럼 지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사회과학의 지식처럼 생각해서 암송한다고 해서 하느님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인의 삶의 지표로서 윤리적 의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은 생명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삶의 길잡이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응답을 해야 합니다. 우선,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믿는다.’는 격언처럼 우리는 귀로, 눈으로, 입술로, 그리고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주님의 말씀을 진실한 행동과 실천으

로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셨고 그 사랑의 징표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느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말씀’을 잉태한 성모님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마음으로 완전히 달라진 상태 즉 전인적인 변화가 생기게 된 사건이 바로 잉태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성모님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어머니로 특히 수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어머니 삶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성모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이번 성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모두 <깊이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인이 됩시다. 예수님을 잉태한 성모님처럼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인생을 만들어 갑시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 삶의 표지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루카 24,32).

2006년 11월 26일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권 혁 주 주교